강의 - 신영복

장 자

녹지조경학과
김태현

장자

장자의 시대

장자(기원전 369년경~기원전 286년경)는 중국 전국시대의 '은자'이자 철학자였다. 전국시대는 문자 그대로 전쟁의 시대였다. 7개의 나라가 쟁패를 겨루다 보니 1년 365일 전쟁을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이 어수선한 시대에는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조용히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을 가리켜 은자라고 했다. 장자는 공자보다 200년 정도 뒷사람이다. 공자의 시대보다 전쟁의 규모가 더 커지고 광폭해진 전국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은자로 살았다. 장자 또한 은자였다

장자의 소요유

逍遙遊

장자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것.
글자 그대로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거닌다는 뜻 .
‘궁극적인 자유’, 또는 ‘자유의 절대적 경지’ 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
인간의 삶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소요유의 의미이고 나아가 장자 사상의 핵심.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 장자가 당시의 제자백가들을 일컫는 비유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한테는 바다에 대해서 말해줘도 소용없다. 그 이유는 그가 우물이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여름벌레한테는 얼음을 말해줄 수 없다. 여름이라는 시간만 살다가기 때문이다. 함량이 작은 사람에게 도(道)를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은 그가 자신만의 좁다란 진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워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

"밭일을 하던 노인은 불끈 낯빛을 붉혔다가 곧 웃음을 띠고 말했다. '내가 스승에게 들은 것이지만 기계라는 것은 반드시 기계로서의 기능이 있게 마련이네. 기계의 기능이 있는 한 반드시 효율을 생각하게 되고 효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잡으면 본성을 보전할 수 없게 된다네.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이 자리를 잃고 생명이 자리를 잃으면 도가 깃들지 못하는 법이네. 내가 (기계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이 여겨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네.'"

논의

▲ 지금은 4차산업 혁명의 시대입니다. 기술 발전은 날로 무궁무진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디까지의 기술 발전을 허용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쓸모없는 나무와 울지 못하는 거위

■ 마음을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 노닐게 함으로써 만물을 부리되
만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화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장자의 주장입니다.

장자가 제자들과 산길을 가다가 잎과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베지 않고 있는 나무꾼에게 그 까닭을 묻자 나무꾼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不材) 때문에 천수天壽를 다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자 일행이 산에서 내려와 친구 집에 묵었는데 주인은 매우 반기며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거위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심부름하는 아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한 놈은 잘 울고, 한 놈은 울지 못하는데 어느 놈을 잡을까요 하자 주인은 울지 못하는 놈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산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천수를 다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집의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장차 어디에 서겠습니까?"
장자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나는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중간에 처하겠다.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중간이란 도道와 비슷하면서도 실은 참된 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빈 배

- 빈 배는 목적지가 있을 리 없습니다.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보행이 아닙니다.

" 배로 강을 건널 때 빈배가 떠내려와서 자기 배에 부딪치면 비록 성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비키라고 소리친다. 한 번 소리쳐 듣지 못하면 두 번 소리치고 두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세 번 소리친다. 세번째는 욕설이 나오게 마련이다. 아까는 화내지 않고 지금은 화내는 까닭은 아까는 빈 배였고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

논의

▲ 불가에서는 화의 근본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라는 것은 내 마음이 외부의 조건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나는지 또 화가 났을때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해보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참다운 지식

雖然有患 夫知有所待而後當 其所待者 特未定也

庸詎知吾所謂天之非人乎 所謂人之非天乎 —「大宗師」

"지식이란 의거하는 표준이 있은 연후에 그 정당성이 검증되는 법인데 (문제는) 그 의거해야 하는 표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논의

▲ '조지어천' 의 입장은 객관적 입장을 의미합니다. 지식에 있어서 과연 객관적 입장이 있는가 이야기 해봅시다.

유소대 이후 당' 란 의미는 지식이란 어떤 것을 기다린 연후에 그 진리성 여부가 판명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